

장애인식개선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

강의안 요약서

| | |
|-------|--|
| 제 목 | 다양성 속에서 공존하기 - 장애인식개선 교육 |
| 수 상 자 | 김성심 (아름다운행동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 강의대상 | 공무원 등 성인 |
| 강의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사회의 '장애' 를 살펴보고, '장애인' 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모 ○ '다름' 의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성 속에서 공통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공감함 ○장애인과 비장애인 공동체의 실천활동을 고민하도록 함 |

| 단계 | 시간 (총60분) | 강의내용 | 강의방법 (강사-학습자) | 강의자료 (매체/기자재) |
|----|--------------|---|------------------|------------------|
| 도입 | 15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란? ○장애인의 인권관련된 법과 제도 | 강의형 질문형 | PPT |
| 전개 | 15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 강의형 사례연구 | PPT 영상물 |
| 심화 | 25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 강의형 사례연구 | PPT 영상물 |
| 정리 | 5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성 속에서 공존하기 | 구안법 | PPT 참여수업자료 |

장애인식개선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
강의 상세원고

※ 본 강의원고는 2018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우수강의안 공모전(주최:보건복지부, 주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상한 강의안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일부 수정 및 감수한 것입니다.

- ☐ 제 목 : 다양성 속에서 공존하기 - 장애인식개선 교육
- ☐ 강의대상 : 공무원 등 성인
- ☐ 강의목표 : 장애인의 특성이해와 사회공동체 구성방안 모색
- ☐ 강의자와 학습자간 학습내용의 충실화 방안 : 자료의 시각화 및 동영상 자료 활용
- ☐ 학습내용에 대한 효과적 활용 방안(TIP) 등 기타 특이사항
 - 퀴즈 정답자에게 선물 제공
 - 학습자료 링크하여 필요할 경우 학습자료 활용하도록 제공



한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UN의 장애인권리선언에 나와 있는 ‘장애인’ 개념은 신체적 능력이나 정신적 능력에서의 ‘정상적’, ‘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비출 수 있다. 하지만 1990대 이후 광범위하게 이야기 되고 있는 ‘사회적 모델’에서의 장애인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사회적 배제 또는 차별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아니라 장애를 배려하지 않는 사회의 장벽이 ‘장애인’을 양산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정상적’인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장애인’은 모든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것이다.

| 장애 유형 | |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신체적 장애 |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 ①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 | | ② 뇌병변장애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 | ③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 | ④ 청각장애 | 청력장애, 청각기능장애 |
| | | ⑤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 | ⑥ 안면장애 | 안면부의 주상, 발음, 비호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 내부 기관의 장애 | ⑦ 심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투석 이식 받은 경우 |
| | | ⑧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 되는 심장기능 이상 |
| | | ⑨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 되는 만성·중증 호흡기 기능 이상 |
| | | ⑩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 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⑪ 지체장애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 | | ⑫ 자폐성장애 | 자폐증,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 | ⑬ 정신장애 | 조현병, 분열성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 장애 |
| | 정신장애 | ⑭ 자폐성장애 | 자폐증,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 | ⑮ 정신장애 | 조현병, 분열성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 장애 |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개발원



문체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록장애인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는데,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가 해당된다. 2000년에 1차로 장애범주가 확대되어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 장애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자폐·정신·신장·심장장애까지 확대하였고 2003년에는 2차 장애범주 확대가 시행되어 안면변형·장루·간·간질·호흡기 장애 등 5종이 추가되었다.

이상에서 장애유형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개념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장애란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말하며 의료모델에서는 손상으로 인한 기능상실에 주목하고, 사회적 모델에서는 손상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 및 배제 요인에 주목하는 등 장애의 개념 또한 변화하고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사회에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3년간의 장애인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약 250만 명에서 약 오천명 가량 늘어났으며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구수 대비 100명당 5명이 장애인이며, 가구 수로 보면 10가구당 1가구 이상이 장애인가구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장애인은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은 소수가 아니며, 가족이고 이웃이다.



□ (쉬어가는 퀴즈) 다음에서 장애인이 나온 사진이 아닌 것은?

- ① 장애인콜택시를 탑승하는 사람
- ② 장애인아이스하키를 하는 사람
- ③ 흰지팡이를 사용하여 도보하는 사람
- ④ 예방접종 하는 어린이

광의의 의미로 보면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는 모두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범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장애(어린이)를 가지고 태어나서 비장애인으로 있다가 다시 장애(노인)를 가지고 있다가 죽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을 신체적 손상(impairment)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사회적 환경에 따른 약자로서 이해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위 그림에서 ①번과 ②은 지체장애인, ③번은 시각장애인으로 보인다. ④번은 어린이로 장애인은 아니지만,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이다. 등록된 장애인이 아닌 경우 ④번이 정답이겠지만 광의의 의미에서는 정답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



- 장애 '이해'하고
'장애인'과 관계하기
- (장애인을 보는 시각은)
"어떤 '장애인'이 아니라,
'그림을 잘 그리는 디디에',
'책을 쓰는 파비올라'로
받아들이는 것"

- 프랑스 장애인교육협회 '수르스(SOURCE)'의
파통김영란(Patron Kim Youngran)



프랑스의 장애인권교육협회 '수르스(SOURCE)'라는 단체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고 있는 김영란씨가 한국으로 돌아와 한 강연에서 한 말이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핵심은 누가 장애인인가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장애인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우리가 장애인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각자의 정체성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 말이다. 장애인의 정체성은 장애인 100명에 100가지 다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100명의 사람이 100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통합을 위한 관계 속에서의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복지의 영역 | 기본법 | 특별법 | 기타 관련법 |
|-----------------|--------|----------------------------------|---------------------------|
| 의료 | | 장애인 건강 관리법 |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
| 소득 | | 장애인연금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국민연금법, 소득세법, 장애인복지법 |
| 고용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
| 주거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주거에 관한 법률 |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 주거보장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주거기본법 |
| 사회 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 |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사회복지사업법 |
|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아동복지법 |
| 재가지원서비스 | |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 관리에 관한 법률 |
| 통리점 접근권 | | | |
| 접근권 |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법률 |
| 이동권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
| 차별금지 |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보육고용법등과 가정법원 지원에 관한 법률 |
| 기타(장애인돌봄·발달장애인) | | 장애인아동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출처 : 장애인복지관련 법률 및 전담체계, 2015 KOCI(국립장애인개발원) 발간 358

장애와 관련된 법을 위와같이 정리해 보았다. (KOCW 강좌 인용)

크게 의료,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사회서비스, 이동접근권, 차별 금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모두 ‘장애인 복지법’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 관련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최초이고, 1989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을 개정하여 장애인 복지법으로 변경하였다.

199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는 1984년부터 건축법시행령에 포함되어있었으나, 1994년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 되었다.

| 장애 인식의 변화에 따른 장애 계도의 변화 | | |
|-------------------------|---|--|
| 항목 | 재활 패러다임 (Rehabilitation Paradigm) | 자립생활 패러다임 (Independent Living Paradigm) |
| 문제의 정의 | 신체적 손상, 직업기술의 결여, 심리적 부적응, 동기과 협력의 부족 | 전문가진적 등에 의존, 부적절한 지원 서비스, 건축물의 장애, 경제적 장애 |
| 문제에 대한 책임 | 개인 | 환경, 재활과정 |
| 문제의 해결 |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재활상담사 등에 의한 전문적인 개입 | 동료상담, 권익옹호, 자조, 소비자 주권, 사회적 장애의 제거 |
| 사회적 역할 | 환자, 클라이언트 | 소비자 |
| 문제의 주체 | 전문가 | 소비자 |
| 바라는 성과 | ADL(일상생활활동) 극대화, 유급고용, 심리적 적응, 동기유발, 완벽한 신변처리 | 자기관리,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 사회적-경제적 손상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출처: 김성호 외,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침(안), 20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판

사회의 법과 제도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즉 인식 체계에 기초하여 변화하고 있다. 장애의 법과 제도 또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로부터 변화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계 또한 기존의 재활 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전환됨으로서 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초점 및 관점이 변화되었고 장애문제에 대한 이념 및 정책이 변화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영국에서 시작한 자립생활 인식체계는 장애를 의료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장애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스스로의 조절이 중요함을 인식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다.

또한 몸이나 정신의 손상은 손상일 뿐이지, 그로 인한 사회적 배제, 차별이 두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로서 시설에서 돌봄이 이루어졌던 장애인 시설보다는 장애인 스스로의 삶을 영위 하도록 하는 탈시설과 자립생활이 주요한 장애복지서비스로 제공 되고 있다.



장애인에 관련된 법에 이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 관련제도를 살펴볼 수 있다. 위 모식도는 제5차 장애인 정책 중합계획(2018~2022)의 정책 비전도이다.

2018년 현 정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주된 목표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5대 분야별로 중점과제를 설정하였는데, (모두를 살펴보기에는 어렵고) 그 중에서도 탈시설 및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붉은색 밑줄 친 부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사업 목적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
-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한 활동조사 220점 이상
-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인정점수 2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 후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지원시간 :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최대 47~118시간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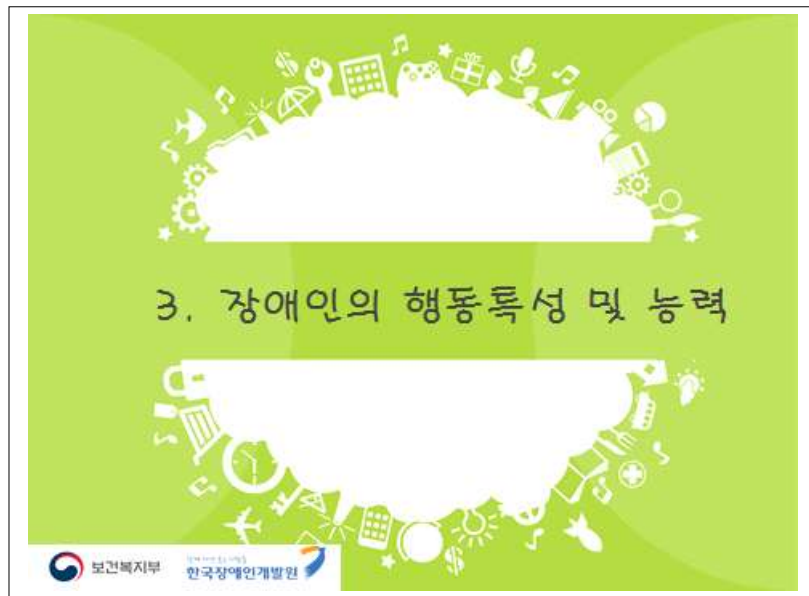
| 활동지원등급 | 인정점수 | 거원 급여 |
|--------|-----------|---------------------|
| 1등급 | 380점~470점 | 1,270,000원(월 118시간) |
| 2등급 | 320점~379점 | 1,012,000원(월 94시간) |
| 3등급 | 260점~319점 | 764,000원(월 71시간) |
| 4등급 | 220점~259점 | 506,000원(월 47시간)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민원망 SSS (사회복지정보포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지원사와 장애인(이용자)이 1:1로 연결되어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신체·가사·사회 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의 행동특성을 일괄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모든 사람은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마다의 개성과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생각·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이 장애인 또한 장애유형에 따른 분류는 가능하지만 장애인 개인별로 손상시기, 장애경험이 다르며, 장애인 스스로가 느끼는 장애감수성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고로 인해 중도장애를 입은 시각장애인 A씨는 평소에는 소극적인 성격이나 술을 마시면 매우 활발한 모습을 보인다. 자폐스펙트럼장애인 B씨는 일본어와 영어를 매우 잘한다. 하지만 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응얼거리고, 스스로의 판단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결국 장애인의 행동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마주하여야 하며, 장애인으로서의 일반적 특성을 선입견으로 알고 있기 보다는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의 특성을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특성을 다른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여 바라보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다.

시각장애 행동특성 및 능력

- ✓ 시각장애는 빛이 눈으로 들어와 뇌까지 전달되는 과정 중 어느 부위가 손상되어 시력을 잃거나 시야가 결손 된 것을 말하는데, 전혀 볼 수 없는 경우보다 명암이나 물체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지팡이의 색깔은 흰색으로 통일되어 있다. 매년 10월 15일은 흰지팡이의 날로서,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 ✓ 많은 시각장애인이 보장구 없이 혼자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전맹(全盲)의 시각장애인도 안내견이나 지팡이를 이용하여 혼자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 ✓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사무업무를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제한적으로나마 일반 사무환경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컴퓨터 화면확대 프로그램, 확대독서기, 음성 출력프로그램 등과 같은 보조 공학기기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영상

<http://bobbiebobble-5.tistory.com/3?category=789292>



출처: 경원대학교 시인교주 5층(북동복합) 한빛마을 중심자료
시각장애인을 유도블록이 있다. 알고 계신가요?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행에 있어서 많은 훈련을 거쳐 자주 다니는 거리는 혼자서도 다닐 수 있다. 이처럼 보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지팡이와 유도블록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유도블록이 없거나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유도블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동영상을 통해 알아보고, 다른 보행방법의 도움을 살펴보도록 한다.

*영상링크: <http://bobbiebobble-5.tistory.com/3?category=789292>

발달장애 행동특성 및 능력

- ✓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나뉜다.
- ✓ 지적장애는 다양한 범위의 IQ를 가지고 있으며, 학업수행의 어려움이 있다.
- ✓ 다른 사람의 말을 똑같이 되풀이 하거나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반향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 ✓ 동일성에 대한 강박적인 욕구로 환경이 바뀔 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불안해 하기도 한다.
- ✓ 특정소리에 견디지 못하거나, 어떤 접촉을 싫어할 수 있으며, 특정 냄새나 맛의 음식섭취를 거부하기도 한다.
- ✓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직무에 종사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출퇴근 훈련을 통해 출퇴근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장 예절 안내서]

- 발달장애인을 위해 쉽게 알 수 있는 직장 예절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종 취업직장 예절 안내서'

발달장애인은 반복적인 행동수정과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나 자료 제시로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이 가능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위와 같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장 예절 안내서'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안내서, 뽕뽕 꿈을 실은 job버스' 등의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지체장애 행동특성 및 능력

- ✓ 이동의 권리가 가장 취약하다.
- ✓ 대부분 운동기능장애나 감각장애 증세가 나타나며, 운동장애는 특정부위의 위축, 경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 몸을 틀어줄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다.
- ✓ 경사로가 없는 장소에 들어가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휴대가 가능한 경사로를 준비하면 좋다.
- ✓ 최근 편의시설의 확대, 재활공학의 발달로 지체장애인의 취업 영역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으며, 육체적인 능력보다 사고와 언어능력이 필요한 직무에서는 지체장애 여부가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



지체장애인 인식개선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sWiySj9LSOU>



물려서 중시 할애 단식개선 교육영상'장애'후회'통합'이야기'

지체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제작한 동영상은 함께 보도록 한다. 서울시에서는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뇌병변 장애, 발달 장애 등 장애 유형별 이해를 돕기 위해 인식개선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하였다.

*영상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sWiySj9LSOU>

뇌병변장애 행동특성 및 능력

-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서 시각, 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지적장애가 동반된 경우가 있다.
- ✓ 뇌병변장애는 운동장애와 언어장애로 인해 장애가 외형적으로 두드러져 보이거나 개인에 따라 직업능력은 매우 다양하므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장애로 직업적 능력을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 ✓ 손이나 팔에 장애가 있더라도 사무보조기구나 작업보조기구를 활용할 경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음료를 권할 때는 빨대를 꽂아 주는 것이 편할 수 있으나, 미리 물어본 후 준비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뇌병변장애는 언어장애, 지적장애를 동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언론 기사를 통해 소개한다.

(자료출처)

- 뇌병변장애1급 구필화가 박성미씨: 경남도민일보, 2005.4.19.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51314>)
- 뇌병변장애1급 중등특수교사직에 합격 장혜정씨: 서울신문, 2017.2.2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22500120>)
- 뇌병변장애 수영선수 임우근씨: KBS NEWS, 2016.9.1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3741>)
- 뇌병변장애1급 마라톤완주 고준형씨: 동아일보 2010.10.15.
(<http://news.donga.com/List/Enterhttp/3/all/20101025/32098199/1>)
- 뇌병변장애1급 목사 류홍주씨: 국민일보, 2011.4.2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4903713>)

장애인 직종별 취업률 * 취업률 = 취업자수/구직자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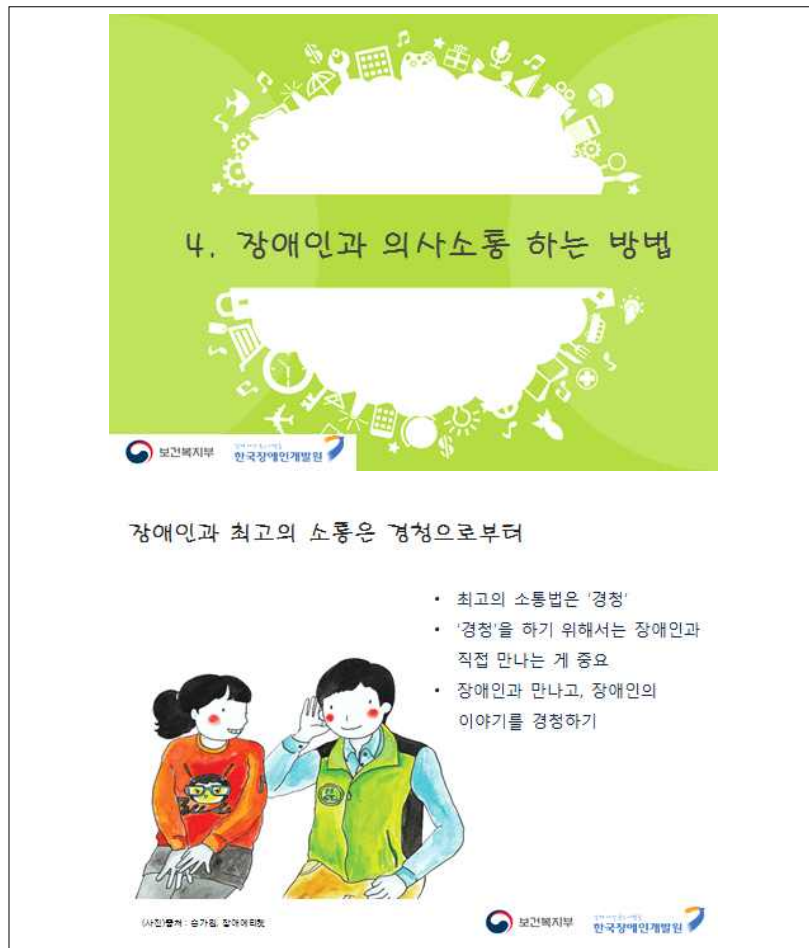
| | | | | | |
|------------------------|-------|----------------|--------|---------------------------------------|-------|
| 관리직(임원·부서장) | 25.8% | 금인 | 0% | 건설·채굴직 | 14% |
| 경영·행정·사무직 | 40.3% | 보건·의료직 | 131.3% | 기계·설치·장비·생산직 | 30.3% |
| 금융·보험직 | 52.9% | 예술·디자인·방송직 | 12.8% | 금속·재료·화학·장비·생산직 (단공·단조·주조·용접·도장 등) | 15.2% |
|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 0% |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 179.4% | 전기·전자·설치·장비·생산직 | 24.4% |
|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 25% | 미용·여식서비스직 | 27.1% | 정보통신 설치·장비직 | 6.4% |
|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20.3% | 여형·숙박서비스직 | 6.5% | 화학·에너지·환경·설치·장비· 생산직 | 38.7% |
|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12.3% | 음식서비스직 | 42.7% | 섬유·의복·생산직 | 59.8% |
|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9.2% | 경호·경비직 | 66.5% | 식품·가공·생산직 | 31.3% |
| 프로그래밍 | 41.8% | 통번역서비스직(간접·통역) | 12.4% | 인쇄·복합·공예 및 기타 설치· 장비·생산직 | 48.2% |
| 법률직 | 12.5% | 정수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58.0% | 제조·단속직 | 38.7% |
| 사회복지·종교직 | 7.5% | 영업·판매직 | 59.3% | 농림어업직 | 30.8% |
| 경찰·소방·교도직 | 0% | 훈련·교육직 | 24.6% | 계 | 63.4%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현황 2018년 3/4분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행복 전도사 닉 부이치치, 시각장애 음악가 스티브 원더 등 장애가 있지만 특별한 능력과 감동을 보여준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다.

비록 앞에 열거한 장애인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장애인 또한 저마다의 개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의 직종별 취업을 살펴보면 장애인도 모든 직종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직무능력을 개발하고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의사소통 방식이 있는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최고의 의사소통은 '경청'이라고 한다. 따라서 장애인도 장애인으로부터 무엇이 불편한지,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경청이야말로 최고의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일상에서 만나야 하겠다. 지역에서 직장에서 장애인과 교류하고 그들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면, 처음엔 잘 들리지 않았던 장애인의 이야기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장애인 중에서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과 대화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들과 이야기 나누기 위한 몇 가지 예절을 살펴보도록 한다.

의사소통 에티켓 - 시각장애인

- ✓ 인사할 때는 내가 누구인지 밝히고 동행인이 있다면 그 사람도 함께 소개한다.
명함을 제작할 때 시각장애인을 배려한다면, 점자도 함께 넣을 수 있다.
- ✓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인사를 하지 않거나, 대화 중에 딴 짓을 하는 등 일반적으로 예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회의 중이거나 말을 시작할 때 누가 말하는지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물건을 전해줄 때는 무슨 물건인지 간단히 설명해 준다.
- ✓ 새로운 장소나 낯선 환경으로 안내할 때는 주변이나 관련 상황을 설명해 준다.
- ✓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은 건 아니며, 최근에는 음성보조 기구가 많아서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점자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을 알고 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예절을 살펴보자.

먼저 인사할 때는 내가 누구인지 밝히고 동행인이 있다면 그 사람도 함께 소개한다. 명함을 제작할 때 시각장애인을 배려한다면, 점자도 함께 넣을 수 있다.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인사를 하지 않거나, 대화중에 딴 짓을 하는 등 일반적으로 예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회의 중이거나 말을 시작할 때 누가 말하는지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건을 전해줄 때는 무슨 물건인지 간단히 설명해 준다. 새로운 장소나 낯선 환경으로 안내할 때는 주변이나 관련 상황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은 건 아니며, 최근에는 음성보조 기구가 많아서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점자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을 알고 있다.

의사소통 에티켓 - 언어장애인

- ✓ 언어장애인이 천천히 오랫동안 이야기 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는 등 자신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다.
- ✓ 언어장애인이 말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당사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려 준다.
- ✓ 언어장애가 심해 알아듣기 어렵다고 대충 듣거나, 알아듣지 못했는데 알아들 척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이다.
- ✓ 이야기를 할 때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적당한 속도와 알맞은 소리로 말을 한다. 너무 빨리 말하거나, 잘 들을 수 있는데 너무 큰 소리로 말한다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 ✓ 최근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와 같은 보완대체의사소통 보조기를 사용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언어장애인이 천천히 오랫동안 이야기 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는 등 자신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다.

언어장애인이 말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당사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려 준다. 언어장애가 심해 알아듣기 어렵다고 대충 듣거나, 알아듣지 못했는데 알아들 척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이다.

이야기를 할 때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적당한 속도와 알맞은 소리로 말을 한다. 너무 빨리 말하거나, 잘 들을 수 있는데 너무 큰 소리로 말한다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최근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와 같은 보완대체의사소통 보조기를 사용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의사소통 에티켓 - 청각장애인

- ✓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메모(필답)를 통해서 혹은 입 모양을 보고 (구화) 의사소통을 하는 청각장애인도 있으며 보청기를 사용해 말하거나 들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떤 의사소통 방법이 좋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 말을 할 때는 눈을 보면서 입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하면 반복하여 말해준다.
- ✓ 대화를 할 때 의미있는 표정이나 몸짓을 이용하면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다.
- ✓ 회의 진행상황을 중간중간 확인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이야기 할 기회를 준다.
- ✓ 알림표지 등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돕도록 한다.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메모(필답)를 통해서 혹은 입 모양을 보고 (구화) 의사소통을 하는 청각장애인도 있으며 보청기를 사용해 말하거나 들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떤 의사소통 방법이 좋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 말을 할 때는 눈을 보면서 입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하면 반복하여 말해준다. 대화를 할 때 의미있는 표정이나 몸짓을 이용하면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다.

회의 진행상황을 중간중간 확인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이야기 할 기회를 준다. 알림표지 등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돕도록 한다.



다양한 장애인 보조기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돕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소개한다.

점자정보단말기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셀을 이용해 파일관리, 문서작업, 인터넷, 이메일 등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장애인용 보조공학 기기이다.

하지만 점자정보단말기는 가격이 비싸고 휴대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점자 스마트워치 닷워치(Dot Watch)가 개발되었다. 시간뿐만 아니라 실시간 스마트폰과 연동해 점자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녹음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언어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완대체의사소통 소프트웨어]

- 말하기 화면에서 텍스트를 키 패드로 직접 입력하지 않고 화면에 보이는 심벌을 터치하여 심벌과 연관된 어휘를 음성으로 출력한다.

개발업체 : 마이토키 스마트



언어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인 ‘마이토키 스마트’는 화면상의 심벌(그림 등)을 눌러 어휘나 문장을 만들고 음성합성기능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조음 및 발성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위한 대안적인 보완 대체 의사소통기기를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라고 부른다.

한국 문화와 생활 문화, 환경에 맞는 어휘, 심벌을 만개 이상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수준별 그림판을 제공하고 있다.

인간의 의지는 위대하다

'하반신 마비' 딥고-- 한발 한발 16일 42.195km

꽃 하반신마비 장애인 '로봇 슈트' 입고 마라톤 완주

'엄마의 걸음마'

5만5000步의 감동

"구름 위 걷는 기분이었어요" 로봇 슈트 입고 석달간 연습



하반신마비 장애인 클레어 로마스가 1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를 했다. 그녀는 하반신마비 장애인 최초로 마라톤 완주를 했다. 그녀는 마라톤 완주를 위해 5만5000보의 연습을 했다. 그녀는 마라톤 완주를 위해 5만5000보의 연습을 했다.

기사출처 : 조선일보(2012.5.10) | '엄마의 걸음마' 5만5000步의 감동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돕는 보행 보조기 리뷰

컴퓨터 본체와 작동전 배터리가 들어있는 박력

이 정보를 환자가 알고 있는 박력 속의 본체로 전송

장치 각 부분에 장착된 센서가 몸의 미세한 균형 변화를 감지

본체가 하체에 붙어 있는 모터를 움직여 다리 부속 지지대를 움직임

다리에 붙이는 지지대

상체를 지지하는 스틱

관절 부분에 위치한 모터

그레타-로마스와 하반신마비 장애인 클레어 로마스가 마라톤 완주를 했다.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보조기기 영상 - Shin's story

https://www.youtube.com/watch?v=eeO_bGcYx0E



출처 :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와 호주 본사, 2012. 7.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을 위한 발명품이 세상을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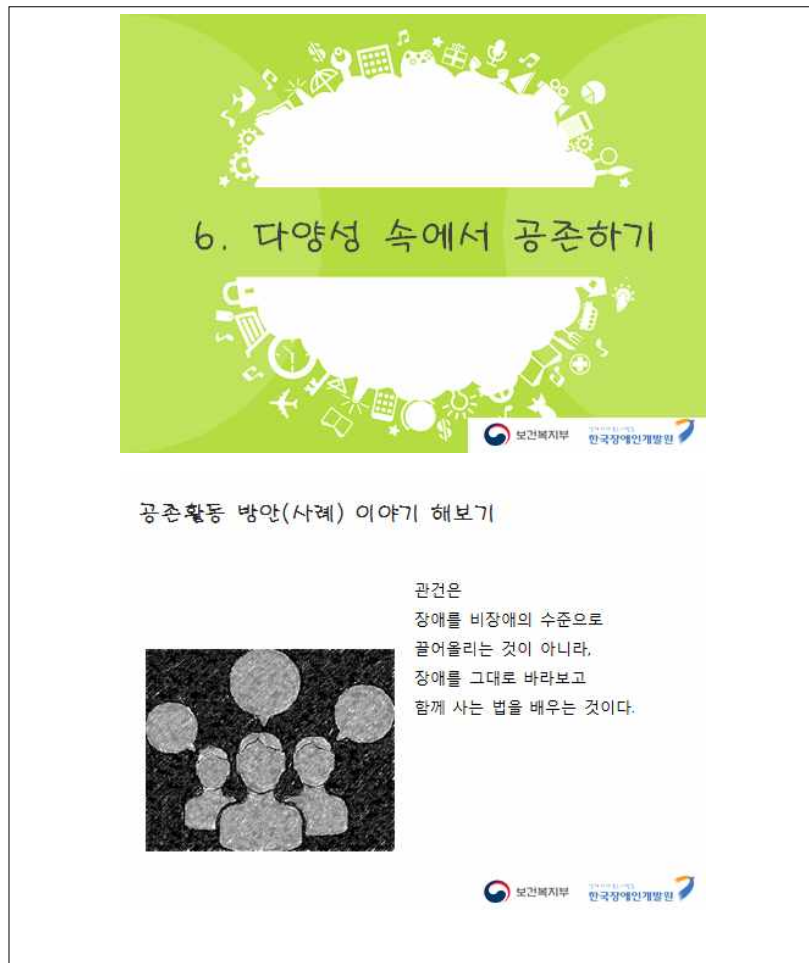
(신문 기사) 위의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에서 하반신이 마비된 클레어 로마스가 인체공학 보행 보조기(로봇 슈트)를 입고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였다. 이러한 로봇 슈트는 앞으로도 장애인 보조기기로서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다.

*기사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10/2012051000270.html

(동영상 설명)척수근위축증인 일본의 신유익씨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활동지원사의 지원으로 자립생활을 하며, 도쿄대학의 철학을 공부한다. 그러한 컴퓨터 기술의 발전은 신유익씨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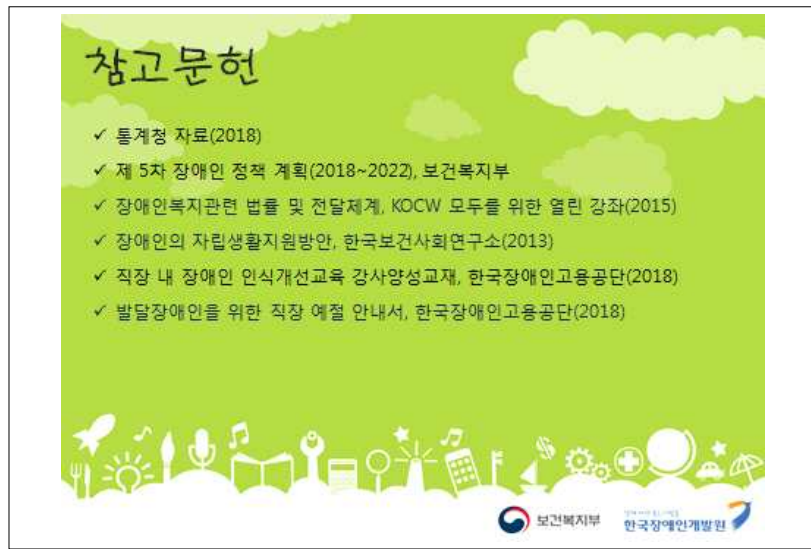
*영상링크:

<https://news.microsoft.com/apac/features/shins-story-using-technology-to-break-down-the-barriers-of-disability-in-japan/>



마지막으로는 교육생들이 팀을 이루게 하여 일상생활에서 ‘다양성 속에서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활동’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를 비장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참고문헌

- 통계청 자료(2018)
- 제 5차 장애인 정책 계획(2018~2022),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관련 법률 및 전달체계, KOCW 모듈을 위한 열린 강좌 (2015)
-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소(2013)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교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8)
-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장 예절 안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8)